

# 한중경제포럼

제21-01호 2021년 4월 14일

##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 2021년 제1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중국 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2. 일 시: 2021. 03. 30(화) 16:00~18:00
3. 발표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쑤쉐궁(孙学工) 소장

### 1. 14차 5개년 계획의 구성 및 중요 의의

□ [구성]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강요(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四个五年规划和2035年远景目标纲要, 이하 "14·5' 계획 강요")는 총 19편, 65장, 192절, 약 7만 5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 첫 번째 부분(제1편)은 총론으로 발전 환경과 방향, 원칙, 주요 목표 등의 내용을 제시
  - 지난 '13·5' 계획의 성과와 경험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5년간 직면하게 될 발전 환경과 기회, 직면한 도전 등의 내용을 서술함.
- 두 번째 부분(제2~18편)은 각 분야별로 '14·5' 계획 기간에 달성해야 할 주요 발전 목표와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및 프로젝트를 제시
- 세 번째 부분(제19편)은 계획의 집행 메커니즘을 제시

□ [중요 의의] '14·5' 계획 기간은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 목표와 '첫 번째 100년(1921~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후, 그 뒤를 이어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건설하는 시작 단계임.

- '14·5' 계획 기간은 '두 번째 100년(1949~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 분투 목표로 향하는 첫 번째 5년으로서,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좋은 시작을 마련하고자 함.
  - 2017년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에서는 '두 번째 100년' 목표를 2단계로 구분하여 실현하기로 결정함.

- 첫 번째 단계(2020~35년):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의 성과를 기반으로, 2035년까지 향후 15년간의 노력을 통해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할 것임.
- 두 번째 단계(2035년~21세기 중엽):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을 기반으로, 15년간의 노력을 통해 중국을 부강·민주·문명·조화의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할 계획임.

## 2. 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 [13차 5개년 계획의 성과] 지난 '13·5'계획에서 목표로 했던 13가지 구속성(约束性) 지표는 기간 내에 모두 달성했으며, 12가지 예측성 지표도 달성했거나 초과 달성함.

- 경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경제구조는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었으며, 국내총생산이 100조 위안을 돌파함으로써 2배 성장(翻番) 목표의 97%를 달성
- 유인 우주비행, 달 탐사 프로젝트, 심해 프로젝트, 슈퍼 컴퓨팅, 양자정보 등 분야에서 중요한 과학기술 성과를 달성하는 등 혁신형 국가 건설 분야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둠.
- 샤오강 사회 건설과 관련한 주요 지표 중 하나는 탈빈곤으로, 중국은 농촌지역의 빈곤인구 5,77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고 절대 빈곤도 크게 해소됨.
-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와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가 각각 13억 명, 10억 명에 달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함.
- PM2.5(초미세먼지) 농도가 28% 감소하였고, 특히 베이징(北京)은 48% 감소하는 등 생태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
- 정확한 분석과 대응(精准拆弹)을 통해 부채 리스크 등 시스템적인 리스크의 발생을 방지했음.

□ '14·5' 계획에서는 대내외 발전 환경과 발전 기회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중국이 직면한 난제와 도전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함.

- [발전 환경 ①] 국제적으로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대격변을 겪고 있음.
  - AI, 5G, 신에너지 등 차세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심화됨.
  - 신흥국가의 비중이 점차 늘어난 반면 선진국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면서 국제 정세도 변화되고 있음.
  - 코로나19의 광범위한 영향 및 코로나19 기간에 실시한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으로 후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경제의 역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그림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중간 경제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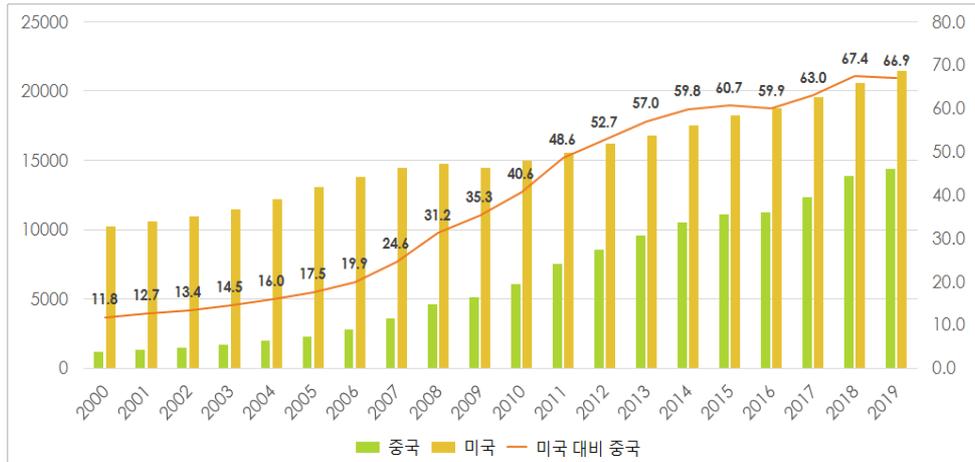


그림 2. 주요국의 미국 대비 경제규모(미국=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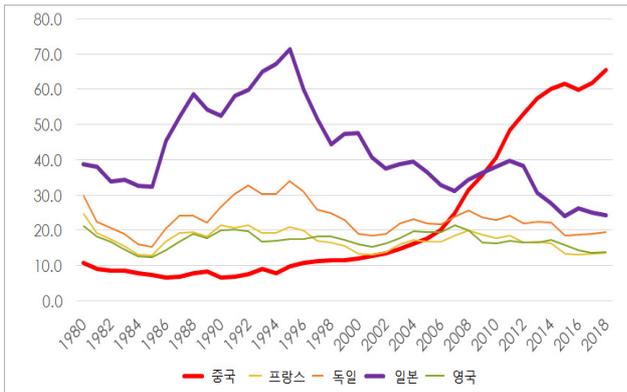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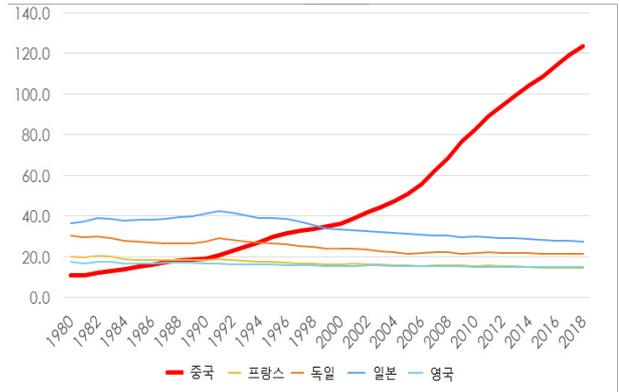


그림 3. 주요국의 미국 대비 경제규모(구매력평가 기준)



- [발전 환경 ②] 국내적으로 중국은 이미 질적 발전(고품질 발전) 단계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당면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함.
  - 뚜렷한 제도적 우위로 인해 거버넌스 효율이 향상되었음.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튼튼한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풍부한 인력자원과 거대한 시장의 발전 기회가 두드러짐.
  - 경제 발전의 회복력이 뚜렷하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혁신능력과 질적 발전 수요의 부조화 △농업 기반의 불안정성 △도농 간의 발전 및 소득의 차이 △생태 환경보호에 대한 부담 △민생 보장 및 사회 거버넌스 취약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
- [발전 기회] '14·5' 계획 기간 중국 경제는 다음과 같은 발전 기회를 열어가고자 함.
  - 차세대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화가 심화되는 추세는 중국이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고 산업 기술의 격차를 좁히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생산요소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질적 발전을 위한 기초적 조건이 현저히 개선될 것임.
  - 국내 시장의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발굴됨에 따라 여러 가지 충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강한 회복력과 여

유를 갖출 수 있음.

- [난제와 도전] 중국 경제는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 산업체인의 재편, 미중 리스크, 인구 고령화 등 분야에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음.
  - 국제경제 환경은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성장과 재정·금융 리스크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또한 역글로벌화, 경제 민족주의가 대두하면서 산업망·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될 압박에 직면함.
  - 미국의 중국 억제전략으로 인해 경제·기술의 디커플링 리스크가 확대됨.
  -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와 저축율의 감소 추세가 일부 산업을 압박함.
  - 환경오염 관리, 탄소피크와 탄소중립에 대한 부담과 임무가 막중함.

□ 또한 "'14·5' 기획 강요"는 총체적인 발전노선을 계획하고 발전 목표, 업무 방향 및 중점 임무를 제시함.

- [발전노선] '14·5' 기획의 5대 지도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의 새로운 발전이념을 변함없이 관철시킴.
  - 질적 발전의 촉진을 주제로, 공급측 구조개혁의 심화를 주요 노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
  - 개혁과 혁신을 근본적인 동력으로 함.
  - 인민들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함.
  - 국내 대순환을 주제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의 형성을 가속화 함.
- [발전목표] 2035년의 목표와 '14·5' 기획의 목표로 나누어 제시함.
  - 사회주의 현대화를 9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2035년까지 기본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장기 목표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함.
  - 경제 발전, 개혁개방, 사회문명 수준, 생태문명 건설, 민생복지, 국가 거버넌스 효율 등 주요 부문별 '14·5' 기획 기간의 목표에 대해 세분화·실제화(细化实化) 함.
- [업무방향] 경제 발전, 혁신주도, 민생복지, 녹색생태, 안전보장 등 5가지 영역에서 20개의 주요 지표를 제시하고,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특징을 보임.
  - 목표 경제성장률을 제시하는데 있어 질적인 표현(定性表述)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구간 유지, 각 연도별 상황에 따라 제시" 등으로 표기했음. 이는 더 이상 경제 발전의 속도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의 질에 초점을 두려는 점과 국제환경의 불확실성·불안정성을 고려한 것임.
  - 20개 주요 지표 중에서 '민생복지' 지표가 총 7개로 가장 많은 1/3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역대 5개년 기획 중에서 가장 큰 비중임.
  - 처음으로 '안전보장' 지표를 설정하였고 식량과 에너지의 종합 생산량을 각각 6억 5천만 톤 이상과 46억 톤 이상으로 설정함.
- [중점임무] "'14·5' 기획 강요"에서는 '14·5' 기획 기간에 실질적으로 추진할 17대 분야의 전략적 임무와 중요 조치를 제시함.

◦ 혁신주도형 발전을 견지하고 현대 산업체계의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임.

- ①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기반으로 삼아 과학기술 혁신, 산업 발전, 디지털 전환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② 실물경제의 기반을 더 튼튼히 확대하고 제조강국 전략을 심도깊게 실시하며, 산업기초의 고급화와 산업체인의 고도화 및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현대 산업체계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임.
- ③ 디지털화 발전을 추진하는데 큰 힘을 기울여 디지털의 산업화와 산업의 디지털화를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것임.
- ④ 현재 중국의 해외 산업체인에 대한 의존도는 기타 주요국에 비해 낮으며,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임.

\* 그러나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2019년 중국의 반도체 수입 규모는 3,055억 달러에 달하여 자급률은 겨우 15%에 그침) △핵심 기초부품과 소자, 선진 기초기술, 핵심 기초소재, 산업 기술의 기초 등 산업의 기초적인 실력이 부족하며 △산업체인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많은 부분에서 해외 다국적기업의 지배와 주도를 받는 지위에 있는 등 부족점도 존재함.

그림 4. 제품 총생산액 대비 중간재 수입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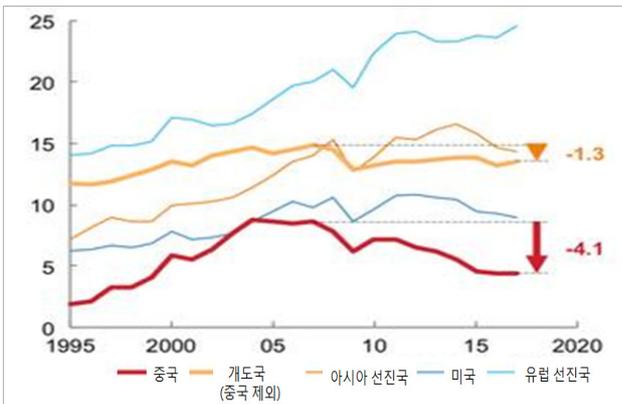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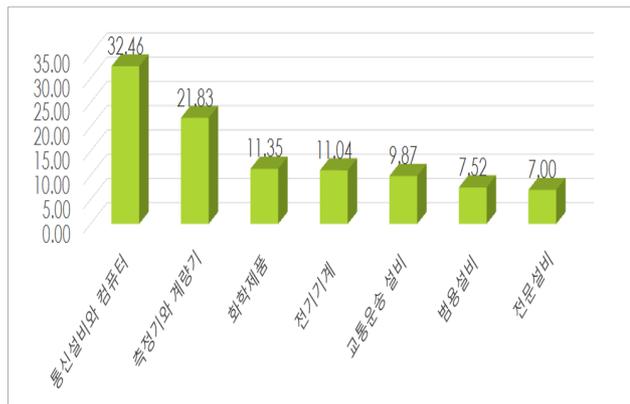


그림 5. 중국의 산업별 중간재 수입의존도(%)



◦ 강대한 국내시장을 형성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자 함.

- ① 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강대한 국내시장을 구축하고, 생산·분배·유통·소비 등 여러 고리를 모두 연결 시키고자 함.
- ② 국내·국제 대순환을 촉진하여 △수입과 수출의 조화로운 발전 △내수와 대외무역의 통합 조절 시스템 완비 △수입의 다변화 추진 △수입 상품의 품질과 상품 구성의 고도화 △국제 쌍방향 투자 수준의 제고 △양자·다자간 투자·협력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함.
- ③ 완비된 내수체계 육성을 가속화하고, 내수확대 전략을 실시하여 △소비·저축·투자를 합리적으로 유도하는 체제와 메커니즘 구축 △경제 발전에 대한 소비의 기초적 작용 강화 △취약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소비와 민생을 촉진하는 동시에 구조조정과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신형 도시화·교통수리시설 등 중대 프로젝트 건설 △공급구조 고도화에 대한 투자의 관건적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그림 6. 내수와 외수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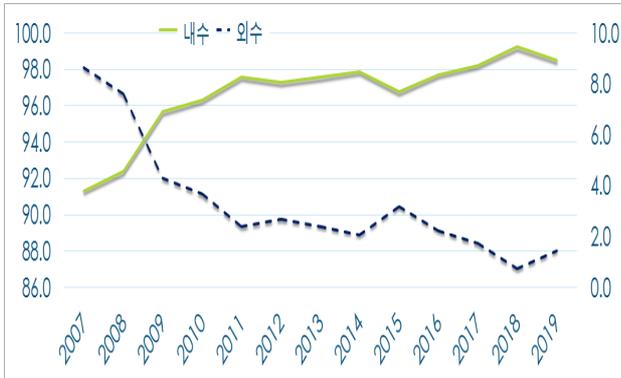


그림 7. 각 국가별 무역의존도 비중(%)



- 농촌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신형도시화 전략을 완비할 계획임.
  - ① △농업·농촌 우선 발전의 원칙 견지 △농업의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18억 무(亩)의 농지 마지노선 사수 △동북 흑토지(黑土地) 보호공정 실시 △농촌 건설을 추진하여 탈빈곤 성과와 농촌진흥 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결 시키고자 함.
  - ② 도시로 이주한 농촌인구가 도시에 융합되도록 촉진하여 △장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새 거주자를 점차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호적제도의 개혁과 도시 기본 공공서비스의 보급을 통합적으로 추진 △소수 대도시를 제외하고 도시호적 취득 제한 조치를 취소 또는 완화 △상주지역 호적등기 제도의 시행 등을 추진하고자 함.
  - ③ △도시의 공간배치 최적화 △도시군·도시권의 발전 확대 △초대형 도시의 규모 축소 및 질적 발전 촉진 △중·대형 도시의 주거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현급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화 건설 추진 △도시 개조사업 추진 △도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주택거래시스템과 주택보장시스템의 완비 등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지역경제 배치를 최적화하고 지역협조발전을 촉진함.
  - ① 국토 공간의 개발 및 보호를 고도화하고 자원과 환경의 수용능력에 입각하여, △각 지역의 비교우위에 기반한 지역별 핵심기능 완비 △중요한 기능성 지역의 보장능력 제고 △해양 경제의 발전잠재력 적극 개발 등을 추진함.
  - ② △징진지(京津冀)지역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발전 △웨강야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의 건설 △창장삼각주의 일체화 발전 △황하유역 생태환경 보호 및 질적 발전 추진 등 중요 지역발전전략의 획기적인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 ③ △서부지역 대개발 △동북지역 진흥 △중서부지역 굴기 △동부지역 현대화 △특수유형지역 개발 등 지역협조 발전전략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지역 간 발전의 상대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
  
-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
  - ①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고 "공유제와 비공유제의 공고한 발전(两个不动摇)"을 견지하며 국유경제 배치의 최적화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민영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시장주체의 활력을 촉진하고자 함.
  - ② 그밖에 △높은 수준의 시장 체계 건설 △재산권 제도의 완비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개혁 추진 △사회신

용체계의 완비 △고효율·규범화·공정경쟁의 국내 통일 시장 형성 △현대화 재정제도와 금융제도의 건설 가속화 △정부 직능의 전환 가속화 △혁신적인 거시조절 능력 구비 △일류수준의 비즈니스 환경 구축 △정부의 거버넌스 능력 제고 등을 추진할 것임.

- ③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대외개방 플랫폼의 기능을 제고하고 개방의 지역적 배치를 고도화하여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원활화를 추진함.
- ④ 일대일로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발전전략과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며, 협력과 안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공동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할 것임.

◦ 녹색발전을 추진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고자 함.

- ① 생태시스템의 질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자연생태체계의 전반적인 질 개선 △산·물·삼림·발·호수·초원의 체계적인 관리 견지 △생태안전보호 시스템의 완비 △자연보호 체계와 보상 메커니즘 구축 등을 추진함.
- ②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의 질 지속 개선 △오염방지 업무 강화 △환경 인프라 수준의 전면적 제고 △2030년 탄소피크 행동방안 제정 △에너지 소비의 총량과 강도조절 제도의 완비 등을 추진하고자 함.
- ③ 발전 방식의 녹색화 전환을 가속화하고, 생태환경 우선과 녹색 발전의 원칙을 견지하며, 경제의 질적 발전과 생태환경 보호의 높은 수준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에너지 소모와 배출이 높은 분야의 맹목적인 발전을 억제하고 자원 이용 효율성을 전면적으로 제고할 계획임.

◦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공동 부유(富裕)를 추진할 것임.

- ① 국민의 소양 제고를 우선시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 체계와 전방위·전주기의 건강 체계를 구축하며 의무교육의 조화로운 질적 발전과 도농 일체화를 추진할 것임.
- ② 강대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자원의 공급을 확대시킬 것임.
- ③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실시하고 포용적 양로서비스를 크게 발전시키며 인구의 질적 보너스를 확대하고 인적 자본 수준과 인력의 종합적인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④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기본 의료서비스의 취약점과 기본 공공서비스의 약점 보완에 힘씀.
- ⑤ 일자리 우선 전략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할 것임.
- ⑥ 도시와 농촌 지역의 모든 국민에게 보급될 수 있고, 공정하고 지속적이며 다방면을 포함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가속화시킬 것임.
- ⑦ 1차 소득분배 중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중산층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공동부유를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임.

◦ 발전과 안전을 총괄하고 더 높은 수준의 '평안 중국'을 건설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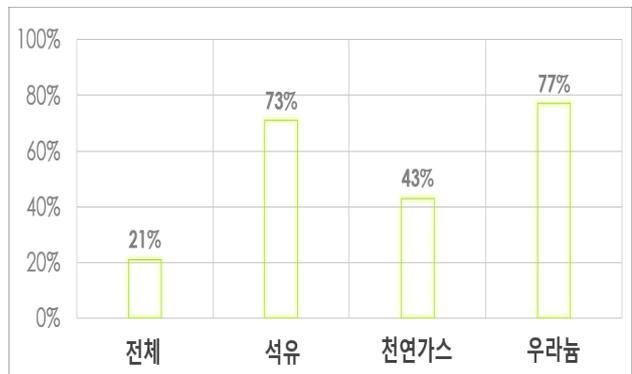
- ① 국가 경제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안전 리스크 경보·통제 메커니즘과 실력을 구축함으로써 주요 산업·인프라 건설·전략적 자원·중대 과학기술 등 핵심적인 분야에서의 안전통제를 실현시키고자 함.
- ② 식량안보 전략을 실시하고 토지와 우량종자의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확보하며 식량을 땅과 기술에 저장하는 전략을 심화하고 종자기술에 대한 R&D를 추진함으로써 식량의 절대 안전, 곡물 공급의 기본적인 자립 및 주요 농산물의 충분한 공급을 확보할 계획임.

- \* 중국 주요 농산물의 경우, 대두와 일부 육류의 대외의존도가 높고 수입국이 편중되어 있음.
- \* 2019년 중국이 수입한 8,851만 톤의 대두 중 5,767만 톤이 브라질산으로, 2019년 전체 대두 수입량의 65.2%에 달함.
- \* 2019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대두는 약 1,694만 톤으로, 대두 수입량의 19.1%를 차지함. 이는 2018년 1,660만 톤에 비해 약간 증가했지만 2017년과 비교해서는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든 수준임.
- \* 2019년 중국이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한 대두는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8.5%를 차지
- \* 2019년 중국이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한 대두는 전체 대두 수입량의 약 92.8%를 차지하는데, 이는 중국이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대두의 비중이 아주 낮은 수준임을 보여줌.

그림 8. 중국 주요 농산물의 대외의존도(%)



그림 9. 중국 에너지의 대외의존도(%)



- ③ 에너지·자원 안보 전략을 실시하여 취약점 보완, 지원정책의 다양화, 저장능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생산·공급·저장·판매 시스템을 완비하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적인 안정과 리스크 관리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 \* 중국은 에너지 소비대국이자 생산대국으로, 에너지 자급률은 80% 내외임.
  - \*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2019년 중국의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는 각각 72.55%와 42.56%로 아주 높은 수준임.
  - \* 에너지 안보 문제와 환경·생태·기후 안전 사이의 모순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화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5%내외로 오염배출량이 아주 높다는 특징을 보임.
- ④ 금융안전 전략을 실시하여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확보할 계획임.
- ⑤ 공공안전 보장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인민과 생명 최우선의 원칙을 견지하며 공공안전체제와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⑥ 안전생산 책임 제도를 완비하고 식품·의약품의 모든 단계에 대한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바이오 안전 리스크 방지 및 통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그 외 국방·군대 건설과 민주·법치, 문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 발전 목표와 중점 임무의 배치에 따라 일련의 중대 정책과 중대 조치 및 중대 프로젝트를 연구·제정함.

- 미래를 주도할 중대 연구 프로젝트, 인프라 분야의 국제급 수준의 대표적 프로젝트, 중요한 민생보장 프로젝트 등 102개 항목의 중대 프로젝트를 배치했음.

## 질의응답(Q&A):

Q 1. 중국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인구 감소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는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는 이민자 유입이 많고 출산율도 높은 편이어서 미래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A 1. 중국은 예전부터 산아제한 정책(한자녀 정책)을 실시해 왔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철폐되지는 않았음. 현재 중국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임. '14·5' 계획의 내용 중에서도 하나의 챕터에 걸쳐 인구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인구 고령화 문제는 불확실성 요인 중의 하나임. 일반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노동력의 공급이 감소되고 저축율의 감소로 인해 자본 축적이 감소하게 됨. 이런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는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중국은 현재 인구 보너스가 소실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새로운 선진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가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기계화·자동화의 추진과 AI의 빠른 발전으로 많은 분야에서 기계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있음. 우리 경제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경제 분석 업무도 AI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으며, 그 외에 주식거래 등 많은 분야에서 AI 기술이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음. 이런 추세로 추정해 볼 때 선진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는 미미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중국의 노동력 규모는 아직도 거대한 수준이며 미국을 훨씬 초과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앞으로 질적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 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인구 보너스 대신 인재 보너스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그 외에 현재 추진 중인 퇴직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도 인구 고령화 문제의 영향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Q 2. 최근 들어 중국에서 "100년만의 대격변"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100년"의 정의는 어떤 기준에서 비롯된 것인지? 만약 1921년 중국공산당 창당 이래 가장 큰 변국이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면, 1921년 이후에 중일전쟁, 국공내전,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등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현재 시점을 100년만의 가장 큰 대변국(大變局)이라고 표현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A 2. "100년만의 대격변"의 100년과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의 100년은 전혀 연관이 없음. 여기서 말하는 100년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건국 100주년이나 창당 100주년과는 달리 정확히 10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앞서 말씀드린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의 변혁 등 여러 가지 국제환경의 변화가 대체적으로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략 100년이라고 표현한 것임.

Q 3. '14·5' 계획의 내용을 보면, 내수 확대를 근본으로 하는 '쌍순환(雙循環)' 발전 전략이 아주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됨.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 확대가 아주 중요하며 소비를 확대하려면 소득의 증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소득 증대를 어떻게 달성할지가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함. 큰 범위에서 보면, 중국

의 중산층 규모가 3~4억 명 정도라고 하지만 세분화해서 보면, 소득의 격차가 아주 크며 고소득층의 사치 소비는 많지만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저소득층의 소득은 사실상 너무 낮음. 그렇다면 소득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A 3. 첫째, 소득을 증대시키려면 우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 조건이라고 생각함. 둘째로, 중·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야 함. 셋째로, 쌍창(双创, 창업과 혁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창출해야 할 것임. 넷째로, 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이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 외국에 비해 중국의 내수가 상대적으로 약한 원인 중 하나는 중국 국민들의 저축성향이 소비성향보다 강한 데 있음. 더욱 완비된 사회보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저축에만 집중하는 성향을 바꾸고 소비에 대한 자신감을 확대시켜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소득 증대를 위한 특별한 비결이나 방법은 없으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입각하여 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소득 격차를 줄이며, 사회보험 체계를 완비해야 할 것임.

Q 4. 기계화의 추진과 AI 기술의 보급에 따라 기계가 사람을 대체함으로써 인구 고령화 문제의 영향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의 관점이라고 생각함.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감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기본소득 보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A 4. 인구 고령화 문제는 확실히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그러나 중국은 14억 인구의 대국이며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된다고 해도 한꺼번에 갑자기 직면하는 문제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일 것이며 그 영향도 완만하게 나타날 것임. 개인적으로 볼 때, 빨라도 '14·5' 계획 기간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중국 국민들의 세대 간 소비성향에 큰 차이가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함. 중국 젊은 층의 소비성향은 아주 높은 편이며 1960~70년대생들과 비교하여 소비의식에서도 아주 큰 차이를 보임. 소비하기 위해서 대출도 서슴치 않는 젊은 세대 사람들이 전체 사회의 소비 주력으로 성장했을 때, 인구 고령화가 소비총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그리 선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기본소득에 관해서, 중국은 현재 "최저 생활 보장"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생활 비용 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이는 미국과 일부 유럽국가에서 말하는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함. 기본소득에 관해서 아직은 특별히 논의된 내용은 없으며 앞으로 사회보험과 연결된 "최저 생활 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최저 생활 보장"의 수준을 제고하는 계획은 갖고 있음.

Q 5. '쌍순환'과 내수확대가 제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의 호적제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 개인적인 기대와 달리 그런 내용에 대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음. 앞서 말씀하신 도시화 전략에 있어서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배경 하에 농민공의 도시 호적제도 개선 정책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서 수요를 확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은 어떠신지?

A 5. '14·5' 계획의 내용에는 "상주인구의 도시화율이 65%에 도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음. 현재는 6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직 5%p를 제고해야 함.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화의 추진은 노동공급 측면이나 소비 측면에서 모두 고령화의 영향을 완화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노동 시간이 현저히 증가하고 소비도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중국 정부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극소수의 특대 도시를 제외한 기타 도시에서는 모두 호적제도를 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대도시 인구를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에게 호적 문제는 더 이상 큰 제한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함. 호적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또 다른 일면은, 농촌 경작지·택지 분배의 권리가 농촌 호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농촌 사람들은 농촌 호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문제도 있음. 현재 실행하는 제도 하에 농촌의 경작지와 택지는 양도가 불가능(극소수 경우 제외)하기 때문에 분배받은 토지를 현금화할 수 없는 상황임. 이런 농촌 토지제도도 도시화의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농촌 토지제도 개혁에 대한 많은 연구와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앞으로 전체적인 방향성은 제도 개혁이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내놓기 어려움.

Q 6. 발표자께서 발표 중에 농촌 빈곤인구 5,77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정부가 말하는 '탈빈곤'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A 6. 여기서 말하는 탈빈곤의 표준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국제 표준과는 차이가 있음. 중국에서 정한 탈빈곤의 표준은 2010년 가격 기준으로 농촌인구의 1인당 연간 순수소득 2,300위안임. 가격이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가격지수에 따라 계산하면 작년 가격 기준으로 약 4,000위안 수준임.

Q 7. 노동소득이 본원적 분배라고도 하는 1차 소득분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나면서 2010년 이후의 계획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내용임. 특히 "과거와 다른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수 특히 소비를 확대해야 되고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2010년 '12.5' 계획부터 이 표현이 나왔음. 한국은행에서 추산한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65%이고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은 70~72%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중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개인적으로 찾아보았으나 공개된 데이터 상으로는 정확히 부합하는 데이터가 없었음. 여러 가지 변수로 대략 계산해 보니 2016년까지는 약간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 다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2010년 이후 중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면 기업분배율이나 기타 자본에 따른 분배 등이 낮춰질텐데 그런 정책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져서 기업에게 또 다른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지 우려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7. 중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체적인 추이는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일치함. 노동소득 분배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가계 조사(家計調査)나 자금흐름표(資金流量表) 등 각각의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계산 기준을 잘 살펴봐야 할 것임. 2016~17년 이후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게 된 주요 원인은 중국의 생산가능인구(勞動力年齡人口, 중국 기준으로 남자 16-60세, 여자 16-50세의 인구)의 절대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데 있음.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매년 300만 명 정도씩 감소하는 추세임. 노동 시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하나의 일자리에 여러 명의 구직자가 있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한 명의 구직자가 여러 개의 일자리 선택이 가능해 짐. 그 결과 월급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일부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필연적인 추세라고 생각함. 만약 월급의 상승이 노동생산효율의 제고로 인한 것이라면 기업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임.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함.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세금감면·행정비용 인하(減稅降費) 정책을 추진하였고 작년의 감세규모는 2조 6,000억 위안에 달했음. 소득분배 중에서 정부의 분배율을 낮춤으로써 기업의 상대적인 안정을 보장하고자 함.

Q 8. 산업측면에서 중국의 반도체나 기초부품 등에 부족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특히 반도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됨.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인력이나 자금, 정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움. 중국에서 부품 산업의 발전이 어려운 기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중국은 베이더우(北斗), 우주항공, 항공모함 등 미국에 필적하는 첨단기술도 개발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 부품소재 분야가 다소 뒤처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A 8. 제가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 우선 먼저 반도체 산업은 산업 체인의 고리가 아주 길고 각 국가들은 각자의 비교우위에 따라 분업이 이뤄지고 있음. 과거에 중국은 반도체 칩의 디자인과 패키징(分裝) 방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었음. 어느 나라든 반도체 산업체인에서 모든 강점을 갖춘 나라는 없으며 나라별로 각자 맡은 분업과 역할이 있는 것임. 중국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확실히 한국이나 대만에 비해 약하며, 그동안에는 자기가 맡은 분업에만 충실하고 반도체 칩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을 느끼지 못했음. 그러나 미국이 갑자기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에 대해 공급을 제한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또한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핵심 설비가 아주 중요한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설비 수출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노광설비 등 중요 설비를 도입하기 어렵게 되었음. 반도체 산업은 소재, 설비, 광학 등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국이 자체적으로 완비된 반도체 산업체계를 갖추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에 비해 항공모함 등 군사설비는 원래부터 국제 분업을 나눈다거나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오래 전부터 자체적으로 연구개발과 제조에 힘써왔고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현재의 성과를 거둔 것임.